

#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Rick Founds

올네이션스 악

1. D<sub>sus</sub> 4 C C/D G G C<sup>2</sup> | 1. D<sub>sus</sub> 4 C C

2. D<sub>sus</sub> 4 D C/D D G G C<sup>2</sup> | 2. D<sub>sus</sub> 4 C C

주 의 이름 높 이 며 주 를 찬 양 하 나 이 다  
 나 를 구 하 면 오 션 주 를 기 바 라 하 나

C D<sub>sus</sub> 4 C G C<sup>2</sup> | C D<sub>sus</sub> 4 C C

이 다 하 늘 영 광 버 리 고 이 땅 위 에

C D<sub>sus</sub> 4 C C<sup>2</sup> | C D<sub>sus</sub> 4 C D

성 거 가 를 기 사 고 께 사 했 네 무 덩 에 서 일 어 나

E<sub>m</sub> 7 A<sub>m</sub> 7 D C/D G C/G G C/G G C

하 늘 로 올 리 션 네 주의 이름 높 이 리

Copyright (C) 1989 Marambaal Praise In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 흠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H. E. Nichol

한국찬송가공회 악

E A A E E A E A E

1. 흠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을 세 계 만 민 이 의 의 길  
 2. 주 예 수 따 르 라 승 리 의 의 주 세 계 만 민 이 돌 아 하 려  
 3. 높 라 운 이 소 식 알 리 어 온 강 라 세 계 만 민 을 구 하 려  
 4. 고 난 길 헤 치 고 찾 아 온 길 많 은 백 성 을 구 하 려

A B<sup>7</sup> G<sub>m</sub> G<sub>m</sub> C<sub>m</sub> F<sub>m</sub> F<sub>m</sub> F<sub>m</sub> A<sub>m</sub> B B/D# E F<sub>m</sub> B<sup>7</sup>

이 경 파 관 서 설 기 을 운 세 계 에 전 하 세 이 만 백 성 이 나 길 길  
 기 고 건 리 요 청 생 명 네 창 경 을 부 수 고 다 따 르 라 화 평 앙  
 내 주 예 수 를 보 내 신 창 사 랑 의 하 나 님 만 백 성 이 따 르 길  
 모 두 나 오 서 민 어 라 운 세 상 이 마 침 내 이 건 강 에 설 겠 네

E B E B<sup>7</sup> F<sub>m</sub> B<sup>7</sup> E B/f# E/g#

어 둠 방 거 나 서 동 뜰 다 환 한 빛 보 아 라 저 빛

B/A E/g# A<sub>sus</sub> 4 A<sub>dim</sub> E/B G<sub>m</sub> C<sub>m</sub> F<sub>m</sub> E/B B<sup>7</sup> E

주 예 수 의 나 라 이 땅 에 곧 오 겠 네 오 겠 네

시편 119:121-144

<p>121 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으니, ○ 억누르는 자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p> <p>122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 교만한 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p> <p>123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 정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p> <p>124 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p> <p>125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 당신의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p> <p>126 주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으니 ○ 나서실 때가 되었습니다.</p> <p>127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p> <p>128 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 ○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p> <p>129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 이 몸은 성심껏 그것을 지키리이다.</p> <p>130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 우둔한 자들도 손쉽게 깨닫습니다.</p> <p>131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입니다.</p> <p>132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 나에게로 얼굴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소서.</p>	<p>133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곳곳이 견게 하시고 ○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p> <p>134 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내 주소서. ○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p> <p>135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p> <p>136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릅니다.</p> <p>137 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p> <p>138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p> <p>139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릅니다.</p> <p>140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 나에게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p> <p>141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p> <p>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p> <p>143 고민과 억압에 짓눌려도 ○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옵니다.</p> <p>144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	--

복음서: 루가(누가)복음 6:13-29

<p>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p>	<p>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p> <p>○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p> <p>●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